

이란, 요르단강 서안에 무기 밀반입...중동 새 화약고 되나

NYT “2년 전부터 요르단·레바논 등 거쳐 비밀작전” 전문가 “요르단강 서안, 가자지구만큼 큰 문제 될 수도”

이란이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인 요르단강 서안에 몰래 무기를 보내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6개월간 이어진 가자지구 다음에 요르단강 서안이 또 다른 무력 충돌 지역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NYT는 미국, 이란, 이스라엘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이 요르단강 서안에 무기를 밀반입하고 있다며 “이란이 이스라엘과의 ‘그림자 전쟁’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공격)에서 요르단강 서안을 화약고로 만들려고 한다는 우려가 커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기 밀반입의 목적은 가능한 한 많은 무기를 요르단강 서안에 보냄으로써 이스라엘을 겨냥한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슬람 시아파 맹주 이란은 속적 이스라엘과 직접 대결에 나서기보다는 레바논, 시리아 등 중동 각지에 있는 대리세력을 통한 그림자 전쟁에 주력해 왔다.

NYT는 이스라엘과 이란,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의 인터뷰를 토대로 이란이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스라엘 등을 통해 요르단강 서안에 많은 무기를 보냈고 이 작업에 범죄 경단, 극단주의 반군, 군인, 정보요원 등이 동원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기 운반에는 아랍계 유목민인 베두인들이 핵심 역할을 한다고 이란 당국자들과 분석가들이 지적했다.

미국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 근동정책연구소의 전문가 매슈 레빗은 “이란인들은 요르단강 서안에서 무기가 넘쳐나기를 원했다”며 “그들은 요르단과 요르단강 서안, 이스라엘에서 범죄 네트워크를 이용했는데 주로 베두인이 상품(무기)을 옮기고 팔았다”고 말했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란은 약 2년 전부터 다른 물품의 밀반입을 위해 이미 만들어진 경로로 통해 무기를 요르단강 서안에 보냈다.

권총, 소총 등 소형 무기가 다수지만 대전차 미사일, 로켓 추진 수류탄 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NYT는 얼마나 많은 무기가 요르단강 서안에 들어갔는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이란, 미국 당국자들에 따르면 이란이

요르단강 서안에 무기를 보내는 경로는 크게 2개다.

첫 번째 경로를 보면 이란이 지원하는 반군이나 이란인 공작원들이 무기를 시리아에서 요르단으로 옮긴다. 이후 요르단에서 베두인들이 무기를 이스라엘과 접한 국경 지역으로 가져가고 그곳에서 범죄 경단이 무기를 요르단강 서안으로 운반한다.

두 번째 경로는 무기가 시리아, 레바논을 거쳐 이스라엘로 옮겨진 뒤 경단에 의해 요르단강 서안으로 밀반입되는 것이다. 많은 밀반입 경로 조정은 이란혁명수비대(IRGC) 정예부대 쿠드스군의 정보원들에 의해 이뤄진다고 이란 당국자 2명이 밝혔다.

매슈 레빗은 작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뒤 레바논 국경 지역의 순찰이 강화되면서 두번째 경로를 통한 무기 밀반입이 더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이스라엘은 이란인들의 무기 밀반입 차단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지난 1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이 폭격당해 7명이 숨졌는데 사망자 중 이란군 지휘관 모하마드 레자 자헤디는 시리아와 레바논 내 무기 밀반입을 담당하는 인물로 알려졌다.

최근 이스라엘의 잇따른 시리아 공습도 무기 밀반입에 관여하는 이란 정보부대를 노렸다고 NYT가 전했다.

약 300만명이 거주하는 요르단강 서안에는 가자지구와 달리 치안을 위한 이스라엘 병력이 배치돼 있다. 그러나 가자지구에 근거지를 둔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발발한 뒤,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에서도 대테러를 명분으로 대대적인 작전을 펴면서 팔레스타인인 수백명이 숨졌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이 활동이 약해진 상황에서 이란이 요르단강 서안 내 무기 밀반입에 더욱 공을 들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라마단 종료 인도네시아 여성 무슬림들이 10일 수도인 자카르타 거리에서 라마단의 끝을 알리는 '이드 알 피트르' 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이든 “이스라엘이 먼저 휴전 제의해야”

‘휴전, 하마스에 달렸다’ 기존입장 급선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가자지구 전쟁 접근법을 비판하며 이스라엘이 먼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휴전을 제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AF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방영된 미국의 스페인어 방송 유니비전과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가자지구 전쟁 대처 방식에 대한 질문에 “그가 하는 일은 실수라고 생각한다”며 “그의 접근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가자지구에서 구호 요원 7명이 숨진 이스라엘의 국제구호단체 트럭 폭격에 대해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내가 촉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휴전을 요구하고 향후 6주, 8주 동안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모든 식량과 의약품에 대한 완전한 접근(가자지구 공급)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휴전을 요구해야 한다는 발언은 휴

전과 인질 석방 협상에 동의해야 할 책임이 하마스에 있다는 중립 입장에서 바뀐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집트와 이야기를 나눴다며 이들 국가가 “식량을(가자지구로) 반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필요한 의약품과 식량을 제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4일 네타냐후 총리와 전화 통화에서 가자지구 전쟁 과정에서 민간인 보호 등을 위한 즉각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지지 정책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구호단체 트럭 폭격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를 직격하는 이런 잇단 발언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민주당 지지층 일각의 반발을 감안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핵사고 부를 불안...IAEA, ‘포화 속 우크라 원전’ 긴급회의

자포리자 원전 연쇄 공격...러·우크라 ‘네 탓’ 공방 중대위험 시나리오 존재...총장 “불길한 전개” 우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오는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럽 최대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인 자포리자 원전이 최근 잇단 드론 공격을 받은 것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연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9일 보도했다.

IAEA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각각 이 사안에 대한 논의를 요청한 데 따라 회의의 소집한다고 밝혔다.

자포리자 원전은 지난 7일부터 사흘간 잇단 드론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허위 정보를 퍼뜨리기 위해 조작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IAEA의 자포리자 원전 파견팀은 7일 드론 공격으로 사상자 1명이 발생했다며 “이것은 자포리자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위험이 크게 확대된 것”이라

고 밝혔다. 다만 공격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어 파견팀은 이날 “소총이 발사되는 소리와 폭발음이 들렸다”며 “자포리자 원전 측은(이에 대해) 한 드론이 원전의 훈련센터 옥상에서 폭발했다고 설명했다”고 IAEA에 보고했다.

러시아는 8일 서한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 원전 공격’과 관련한 IAEA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 영토의 안전에 대한 논의를 IAEA에 요청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배후에 누가 있든 불안정을 하는 것”이라며 “원전 공격은 극도로 무책임하고 위험하며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외교수장 “유럽 전면전 환상 아냐”...러시아 위협 경고

유럽연합(EU) 외교 수장이 유럽에서 우크라이나를 넘어선 전면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9일(현지시간) 경고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 연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EU 회원국에 대한 하이브리드 공격을 통해 “유럽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쟁은 분명히 우리 주변에 다가오고 있다”며 “유럽에서 고강도 재래식 전쟁은 더는 환상(fantasy)이 아니다”라고 했다.

보렐 대표가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FT는 전했다.

유럽에서는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이어 다른 유럽 국가까지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럽을 겨냥해 방위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러시아가 유럽 국가를 침공해도 내버려 두겠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하면서 불안감은 더 고조됐다.

보렐 대표는 이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 북부 아프리카의 불안정한 상황을 언급하며 “베를린 장벽이 우리 주변의 불의 고리로 대체됐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